‘엑스포 효과’ 여수 땅값 9% ⬆

상승률 광주·전남 최고…목포 0.4%로 최저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오늘 최종 결정 공시

여수 땅값이 엑스포 효과로 9% 넘게 오르는 등 광주·전남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도내 토지 41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역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평균 4.6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별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2012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가 9.0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원주택 화가마을 조성사업이 펼쳐지는 구례군이 7.03%, 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는 광양시가 5.74%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 가장 낮게 상승한 지역은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목포시로 0.40%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역별 평균 지가는 토지면적이 적은 목포시가 ㎡당 13만7172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이 ㎡당 2300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고 지가는 ㎡당 398만원인 여수시 중앙동 581 대지(상업용)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당 98원인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산4(섬·자연림)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되며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송부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1일부터 시·군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다음달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 ‘2012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가 3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광주지역 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맹장·치질·제왕절개 입원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7월부터 ‘포괄수가제’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하고 환자 부담이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로 환자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탈장(27%)이며, 다음이 제왕절개 분만(25.7%), 백내장(25.4%), 자궁수술(21%) 등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198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 시술법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른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 가산제도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며 건정심을 탈퇴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는 지난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 찾기→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나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 오늘 여수박람회장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가 31일 여수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열리는 ‘제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박람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시장과 빅오쇼 등을 관람한다.

또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리는 해양레포츠 체험행사에 참여한 뒤 현지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제주로 떠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분실해도 환불받는 기명식 교통카드 어떨까요?”

광주시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이성호씨 대상

광주시는 30일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 ‘분실해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기명식 교통카드(대중교통과 이성호)’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우수아이디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5개 구청 공무원 및 시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8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선에는 총 34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자웅을 겨뤘다.

전문심사단과 청중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심사에는 제안자별로 아이디어 내용을 발표한 직후 전문심사단(50%)과 청중심사단(50%)의 점수가 합산되어 전광판에 표시되는 나가수 방식이 도입됐다.

전문심사단은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학계, 광주발전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청중심사단은 공무원 100여명과 시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특별승급, 승진인사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북구 ‘시화 문화마을’ 첫 삽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치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북구 시화(詩畵)마을에 전시관이 건립되는 등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31일 제2순환도로 문화대교 밑에서 ‘북구 시화 문화마을〈조감도〉 조성’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부지 1만6200여㎡, 건축면적 1676㎡ 규모로 ‘문화의 집’과 전시관 등이 신축되며 문화광장, 잔디광장, 연못,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모두 9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14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899㎡규모로 지어지는 ‘문화의 집’은 주민들의 소통과 단합의 공간으로 사용되며, 모임과 체육공간, 홍보관이 들어선다. 2층 규모인 전시관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문화대교 아래 잉여부지에는 실개천이 조성돼 등산로를 오르는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 변두리 자연마을 형태인 이곳은 지난 2000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을에 시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설치하면서 ‘문화와 자치

가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에는 행안부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대상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오늘 광주 방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31일 광주를 방문한다.

한 회장은 이날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1일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 참석해 지역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FTA 시대의 개막과 지역 경제의 활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광주 하남산단 내 화천기공을 방문하고, 영암 F1 경주장을 찾아 경기장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무상 재해 공무원 지원 확대키로

광주시, 지원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공무상 재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어 위문금 등 쥐꼬리만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광주시 공무원이 시청 사무실에서 토지보상에 앙심을 품은 민원인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의료비 일부와 형사사건 소송비, 20만~50만원대 위로금이 고작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무상 재해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무 추진 과정에서 상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의료비 이외에 본인 부담금을 광주시가 부담하고 위로금 지급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해 형사나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2012 공직 박람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공직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2 공직 박람회’가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람회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 2개 헌법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54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 채용 안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 1대 1로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모의 면접, 모의 평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해부터는 고졸자 채용과 관련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9급 공채시험 개편 방향을 자세히 안내한다. 프로그램은 박람회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중의 침구학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세미나

공개강좌 & 수강생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
(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중의학,경혈학,
진단학,방약학,해부학 등

〈침구기본학 교재〉

공개강좌일정 광주27기) 6월 1일(금) 오후 2시

위치 :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